

다윗, 찬란한 슬픔의 왕

* 6/18(금) 사무엘하 ① 1-4장

| 사울과 다윗 1-4장 | 다윗 5-24장 |
|--|---|
| <p>▶ 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1-4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울의 전사 소식, 아말렉 청년· 다윗의 애가(哀歌) : 활의 노래· 한 나라, 두 왕 : 다윗 vs.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 다윗의 변성, 사울 가문의 몰락 | <p>이스라엘의 왕 다윗 5장 여호와의 궤와 언약 6-8장 다윗과 므비보셋 9장 다윗의 죄, 하나님의 용서 10-12장 압살롬의 폭주, 다윗의 도피 13장-19:8</p> |

Before 출치며 읽기

다윗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나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다윗의 <적> 사울이 죽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희소식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보(悲報)였습니다.

• 다윗, <찬란한 슬픔의 봄>을 맞이하다.

두 ‘용사’의 죽음을 고귀하게 높여

유다 지파와 함께 애도합니다(1:17-27).

*야살의 책에 기록된 ‘활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수 10:13).

<적>과 <벗>의 죽음을 동등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 애가(lament)는 그 어떤 정치적 명령보다

강력한 국민 통합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험천만한 사울의 땅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으로 도피했습니다.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원인 제공자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서 기름부음 받은 왕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한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한 첫 업무는

사울을 장사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일입니다(2:4-5).

*의인의 책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책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힘들게는 했지만,

그를 결코 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따라 좌우되고 움직이기로 택하면,

강하여 부러지지도, 약하여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 이스라엘, <찬란한 슬픔의 시대>가 도래하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각 지파마다 개별적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외부세력의 공격이 있을 때는 ‘히브리인’으로서 단결했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지파별 정체성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블레셋의 위협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지파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열한 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고,

남쪽의 커다란 유다 지파는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윗의 출신인 유다 지파는 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즉시, 다윗을 유다의 중심 도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 왕실을 존속합니다(2:8-11).

실상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정권입니다. 한 나라, 두 왕의 체제로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 사람의 주권 vs. 여호와의 주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내분으로, 사울 가문이 몰락해갑니다.

이스보셋에게서 등을 돌린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갑니다(3:12).

다윗과 아브넬이 평화를 위한 회동을 합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그의 상관(上官)을 이해할 수 없어, 분개합니다.

그는 아브넬과 상관(相關)이 있었습니다.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 아브넬을 살해합니다(3:26-27).

‘사람의 생각’이 다윗의 정치생명에 큰 위기를 만듭니다.

이스보셋은 베냐민 지파 사람, 바아나와 레갑에 의해 살해됩니다(4:2, 6-7).

급변하는 정세를 빠르게 간파하고 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들을 처형하여 자신의 결백을 알리고,

죽은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러 사울 가문을 존중합니다(4:9-12).

애가를 지어 불러, 아브넬의 죽음을 요압의 단독 범행이었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3:33-37).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 아닌데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삼상 1:1).

엘리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제사장권’은 그의 시대에 막을 내립니다(삼상 2:27-30).

사무엘과 엘리는 둘 다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은 무사했지만, 엘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 또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결코 사울보다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돌봄을, 사울은 벼림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삼상 2:6-8).” 모든 것은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